



나누기
희망을 지피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2022. 6호



아일랜드에서...

윤경희 쯔마.FMM



아일랜드 더블린에 살고 있는 윤경희 쯔마입니다. 벌써 이곳에 거주한지도 7년이 되었어요. 아일랜드의 시간은 한국에서의 시간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수도회 수녀님들을 위한 학생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약 40년 동안 여러 국적의 수녀님들이 이곳에 머무시면서 영어, 신학, 그리고 양성지도자 공부를 하셨지요. 한국 수녀님들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학업을 수행하셨었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더블린의 CLONTARF 공동체는 현재 7명이 함께 살고 있고요, 그 중 3명은 공부하시는 수녀님들 이십니다. 내년 7월까지 영어 공부를 위해 이곳에 오기로 하신 수녀님들이 벌써

5명이나 예약하셨다고 하시네요. 로마에 계신 총평위원 수녀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점점 더 많은 수녀님들이 영어공부를 위해 아일랜드에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자매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한 풍요로움과, 또 다름으로 인한 도전이 저희 모두로 하여금 하느님 안에서, 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항상 성찰하게 합니다.

지금 현재 아일랜드에 5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4개 공동체는 더블린에, 1개 공동체는 아일랜드 서쪽, LIMERICK 이라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약 50명 정도이고요. 현재 아일랜드는, 영국, 스코틀랜드, 몰타와 함께 한 관구인데, 내년 2023년에는 프랑스, 벨기에, 네델란드, 폐로에 아일랜드, 이렇게 옆 동네 네 나라와 함께 더 큰 울타리 하나로 묶여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 8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자매들이 노소에 관계없이, 앞으로 같이 살아갈 준비를 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일치를 위해 나아가는 저희의 노력을 하느님께서 힘차게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요양원에서 사목자로 일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영적 필요에 귀를 기울이며, 미사 전례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잠시 생각해보면, 어르신들도 저도, 모두 다른 곳에서 살다가 요양원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지요. 하느님 안에서 이어진 귀한 인연, 소중히 생각하며, 만남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면서 변함없이 도와주고 응원해 주시는 공동체 자매들께 감사하고, 학업을 위해 아일랜드를 찾아와 주시는 여러 나라의 자매들을 만나면 반갑고, 좋은 곳에서 좋은 자매들과 함께 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새로운 나라, 아일랜드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레바논 이야기

Jeanne Abou Assaf. fmm

‘Aïn El Delb’ 는 레바논 남쪽 Saïda 지역의 마을들 가운데 하나로 Saïda의 남동쪽에서 5km 떨어진 곳, 수도 베이루트에서 45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1985년 레바논 전시에, Saïda 동쪽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은 쫓겨나서 수도 베이루트를 향해 이동했고, 많은 이들이 집을 빼앗겼으며, 비신도인 민병대가 그들의 재산을 차지했습니다.

1990년 전쟁이 끝난 뒤 크리스찬은 그들이 살던 도시에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1985년 전에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크리스찬의 자리를 이슬람 교도들이 대신하게 되어 마을에는 이제 두 개의 교회만 남았습니다. (마론파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가톨릭 교회인 성 바실리오)

FMM 수녀들은 1977년부터 줄곧 이 지역에 현존해 있는데, 전시에 잠깐 떠났다가 2018년에 되돌아왔습니다. 이곳의 FMM 공동체는 모두 네 명의 수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마을은 크리스찬과 무슬림이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마을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도직은 마을과 Saïda 동쪽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본당, 교리 교육, 사회 복지, 교육과 보건 분야)의 가능성과 방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간은 팬데믹으로 인해 환자와 노인 등 가난한 이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고, 방법도 달라졌는데, 집 밖에서 마스크를 하고 이야기하거나, 전화 등 예전과 다른 의사 소통 방법으로 사람들 사이에 소식을 전해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교리 교육은 한동안 할 수 없었다가 지난 해, 두 곳의 본당 신부님과 교리교사들, 협력자들이 아이들이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돋기위해 부활 전 5주간을 교리로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개의 교리반이 형성되었고, 잘 활용되었는데 아이들이 이미 학교 수업을 비대면으로 받는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만나서 하는 수업을 더 좋아하기에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의 부모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가 되어 자연스럽게 온라인 교육으로 부모들과 함께 신앙을 키워가도록 이끌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랫 동안 팬데믹과 거리 두기로 인해 하지 못했던 첫영성체 예식을 하였는데 모든 신자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주었고, 첫영성체를 한 사람들이 많아, 네 그룹으로 나누어 함께 경축하였습니다.

교구와 본당 차원의 여러 그룹들을 위해 가정교리, 혼인 준비, 여성 교육(교회와 사회 안에서 여성들의 현존과 사명)을 돋고 여러 모임(여성 모임, 지적 장애를 지닌 이들의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상황을 짧게 나누자면 현재 레바논은 2019년 11월부터 만연된 부패에 반대하는 운동이잇따라 여러 가지 위기(정치, 경제, 보건)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찾아서 나라 밖으로 떠났고, 젊은 부모들은 더 나은 삶을 자녀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이민을 택하기도 했으며, 레바논 통화의 가치 절하와 높은 물가에 의해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은 같았기 때문에 모두가 의식주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료비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는데, 설상가상으로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나라를 떠났으며 의료 기구와 약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선교 사명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 현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문과 What's app(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앱)을 통해 할 수 있는 한 소통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람들을 위로하며 도왔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물질을 통한 실제적 도움을 주도록 노력한 것인데 자원에 비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 환자 특히 노인과 군인, 소액의 월급으로 살아가는 가족들, 교육, 약품 기부와 의료처치 등 우선권을 선정하여 기구나 평신도와 함께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제, 평신도들로부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정을 소개 받아 돋고자 했으며, 우리 안에 구축된 신뢰가 있었기에 협력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필요에 응답하기 위한 선교 사명은 필요한 도움을 주는 데 그치기 않고, 마을의 소수인 크리스챤의 신앙을 격려하고, 더욱 깊게 하기 위한 교육과 사목 역시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감동적인 나눔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약을 가진 이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약을 수녀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수녀님들은 이 약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아시니까요.” 라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연대의 체험을 합니다.



“약을 수녀님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수녀님들은 이 약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아시니까요.”

팬데믹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더 가난해진 사람들 안에서 나눔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지닌 작은 것으로 우리의 사랑에 보답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는 매일 다가오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부르심에 열려 있고자 합니다.

“현 시대에 인간다운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가을을 맛보다.

빈창숙 엘리사벳.영적가족 4기

가을을 맛보다.

가을이 차가운 바람 따라 가버릴 것 같아 가을을 맛보러 갔다. 꽃이 좋아 금이산 산기슭에 터를 잡고 정원을 가꾸고 있는 지인의 정원은 누구든지 지나는 길손이 꽃향기 맡고 들어오라고 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계신다.

황금빛으로 가을을 맞는 벼는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고, 첫 돌맞이 아기의 노란 저고리 같은 국화꽃은 나를 기다리고, 나비를 닮아 나비 바늘꽃이라 부르기도 하는 가우라 꽃은 자유로운 영혼처럼 바람 따라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 내 마음을 설레게 하고, 한쪽 구석에 초연히 피어있는 에키네시아 꽃은 곧 비상할 자태로 나를 사로잡았다.

어릴 적 까맣고 동그란 씨앗을 돌멩이로 콩콩 짹어 분처럼 하얗게 바르고 소꿉장난하던 분꽃도 피어있고, 족두리 꽃은 예쁜 아가 머리 위에, 덜꿩나무의 빨간 열매는 실에 꿰어 목걸이를, 아직도 피어있는 봉송아 꽃은 어릴 적 손톱에 빨갛게 물들여 주시던 할머니를 기억하게 해주었고, 산기슭에 눈의 결정체처럼 해맑게 피어난 구절초 꽃은 마치 가을에 내린 눈꽃 같다.

보석 같은 단추 국화꽃은 내 어머니 반진고리 속에 쑥 넣어두고 싶고, 꽈 리릭~불던 꽈리는 웃음짓게 하고, 그리움이 담뿍 담긴 쑥부쟁이의 꽃향기를 맡으며 가을의 시간 속에 조용히 머물러 보았다.

꽃길을 지나 뒷산으로 올라가니 연리지 소나무 2그루가 기다렸다는 듯이 기지개를 켠다.

“서로 다른 둘이 만나 하나가 되어 마주 보는 사랑을 하고 나이 들어 삶이 익어가면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반자가 된다.” 연리지처럼

지인이 즉석에서 맨드라미 꽃을 따다 페퍼민트 잎 몇 장 넣고 뜨거운 물을 넣으니 다홍빛으로 우러났다. 한 모금 마셔보니, 음~~~가을 맛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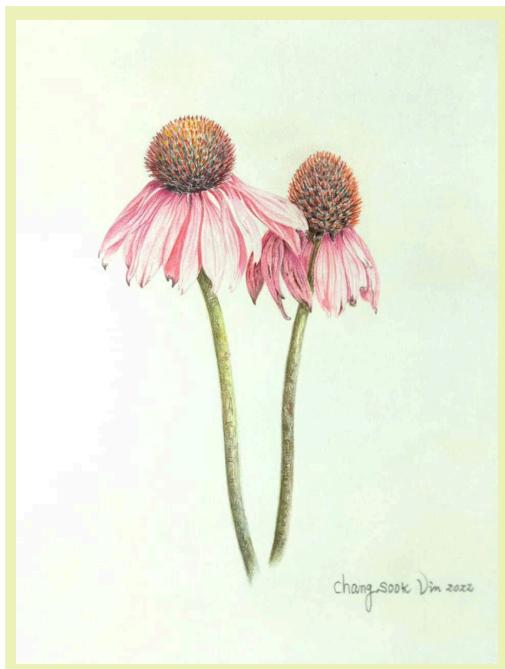
가을이 그곳에 머물렀다.

가을이 머문 곳에 꽃이 있었다.

사람들도 함께 그곳에 있었다.

모두 모두 꽃이었다.

모두 모두 가을이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의 길을 닦아라. 하늘은 비처럼 의인을 내리라.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나를 넘기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큰 빛 속에서 봅니다.

그의 길을 닦아라,

그것은 사랑을 피하고자 수천 번씩 되는 펑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마리드라 빠시옹의 영적 노트 307(1888.12.11)



2022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 수도회에 후원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성 어린 후원금은 전쟁, 정치적인 탄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들, 난민, 이주민, 새터민, 독거노인, 난치병을 앓는 영유아, 청소년, 정신적 고통을 받는 이들 등을 위해서 한국과 해외의 선교지에 사용 하였습니다. (미얀마, 인도네시아,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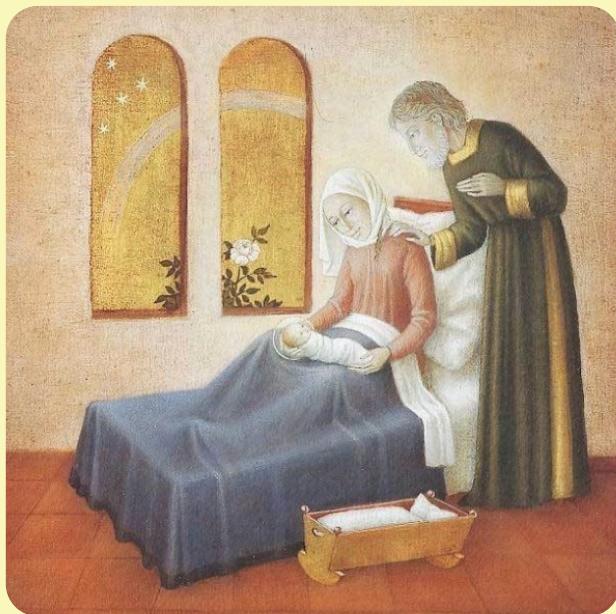
여러분들의 나눔은 루카 복음에서 강도들을 만나 초주검을 당한 이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며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저희 수도회가 돌보는 많은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초대합니다.

예수그리스도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가능한 일을 인간인 마리아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 38)의 신앙 고백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다가오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들에서 길을 발견하며 하느님께서 지금 나에게 새로운 길로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3년에도 저와 함께 성경 통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평화가 필요한 이 세상에 아기로 탄생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후원 담당 금베로니카 수녀 드림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은행 072-475366-13-401 농 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 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1일 ~ 2022년 11월 30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 | | | | | | | |
|-----------|----------|-----------|----------|----------|----------|----------|----------|
| (재)고려문화재단 | (주)모톨초경 | 가정동빈첸시오 | 가좌동(농협) | 갈산동성당 | 강경아 | 강미현 | 강숙자(조정권) |
| 강순조 | 강승완 | 강신연 | 강연호 | 강지우(왕효준) | 강향주 | 검암성당빈첸시오 | 고대완 |
| 고재영 | 고지영 | 고희숙 | 공창용 | 공해용 | 구웅회 | 권순영로살리아 | 권순익 |
| 금창호 | 김광기 | 김광자 | 김귀선미리암 | 김귀선스테파니아 | 김기태 | 김남기 | 김덕칠 |
| 김두환(김철형) | 김득수 | 김득현 | 김미리 | 김미숙엘리사벳 | 김미애자 | 김민규 | 김상률 |
| 김성애 | 김성옥 | 김성용 | 김성원 | 김수경 | 김순철 | 김시준 | 김연진 |
| 김영운 | 김영재(허갑수) | 김영준 | 김영춘 | 김영희 | 김옥림 | 김옥주 | 김용수 |
| 김원진 | 김유정 | 김잔디 | 김재식 | 김정매(박치현) | 김정민 | 김정숙마리아 | 김정연홍수봉 |
| 김정택어울회벗 | 김정혜(정구총) | 김정화 | 김종연 | 김주영 | 김주옥 | 김주희(신경란) | 김준희 |
| 김진숙알데군다 | 김진식 | 김진욱 | 김춘자루갈다 | 김해자 | 김현숙(최지명) | 김현희 | 김호성(박정식) |
| 김희정 | 나숙희 | 나정순 | 남보라 | 노근 | 노미경 | 노병덕(권정희) | 노봉근 |
| 문성식 | 문준식 | 민들레복지회 | 민병관 | 민정웅 | 바이올가제주 | 박금난 | 박기선 |
| 박성현 | 박소진 | 박수선 | 박수인 | 박순옥 | 박승민 | 박원서 | 박윤민 |
| 박재용 | 박정순(임현서) | 박정연 | 박준우 | 박찬순 | 박찬주 | 박찬희(강동연) | 박태분 |
| 박회수 | 박효정 | 박희순 | 밝은미래 | 방상만사도요한 | 방웅 | 방진 | 배수정 |
| 백성대 | 변복자 | 변태식 | 빈창숙 | 사랑나무치과 | 서덕순(서득순) | 서춘자 | 서태진 |
| 석상령 | 성영주 | 소재록(구곡의원) | 손순덕 | 손은영 | 손은주 | 손정례 | 송명순비아 |
| 송정애 | 송채영 | 송혜경 | 신동규 | 신승일 | 신용숙 | 신유라 | 신재진 |
| 심귀선 | 아가맘2호 | 안미령 | 안양금 | 양공연 | 양미경 | 양영자 | 양윤석 |
| 영적가족8기 | 오말희 | 오숙자 | 오승훈 | 오영 | 오영희 | 오옥형(최민귀) | 오인근 |
| 원당동성당 | 원세경 | 유경혜 | 유미경 | 유병춘 | 유수민 | 유영재 | 유은분 |
| 육동배 | 윤군자(김호송) | 윤규현 | 윤명희 | 윤문섭(문선미) | 윤미숙데보라 | 윤보미 | 윤봉수 |
| 윤정희 | 윤한희 | 윤현숙 | 이갑수 | 이경석 | 이관훈 | 이광진(홍기원) | 이광희 |
| 이동은 | 이동준 | 이동현 | 이명순(이선영) | 이명진 | 이명혜 | 이미란 | 이민희 |
| 이성엽 | 이성호(조봉례) | 이연실 | 이영미 | 이영복 | 이영애 | 이영혜 | 이옥자 |
| 이인숙로사 | 이임수(송재용) | 이재우 | 이정란(최윤) | 이정숙데레사 | 이정숙마리아 | 이정숙수산나 | 이정원 |
| 이정준 | 이정하 | 이정희소피아 | 이제희 | 이종옥 | 이지인프란체스카 | 이태금 | 이필단 |
| 이혜숙 | 이혜연 | 이혜영 | 이홍식 | 인용석 | 인천교구 | 인천재속프란 | 인혜정 |
| 임호 | 작은별김호식 | 장민정 | 장세옥 | 장영문 | 장영순 | 장영표 | 장우영 |
| 전순자 | 전영관 | 전주란 | 전충엽 | 정경원 | 정경필 | 정광진 | 정동락 |
| 정소영 | 정숙자 | 정애숙 | 정영숙 | 정옥희 | 정은영안젤라 | 정인순 | 정재영 |
| 정희파키스탄 | 조건희(최휘선) | 조국제 | 조금자 | 조남섭 | 조명숙 | 조상위 | 조석금 |
| 조화숙 | 조희공 | 조희무 | 주)가나스타일 | 준메디케어 | 장은숙 | 진성자 | 진숙인 |
| 최광열 | 최규범 | 최금영 | 최두진 | 최미양 | 최선애 | 최성순 | 최숙규 |
| 최영애 | 최영호 | 최옥자 | 최원단 | 최원철 | 최은실 | 최인석 | 최일순 |
| 추기연 | 추영숙 | 추종현 | 축복합니다 | 태계남 | 파키스탄박진 | 평화장터 | 프란형제회 |
| 한규영 | 한기훈 | 한순옥 | 한순희 | 한영미 | 한옥선 | 한은희 | 한진경 |
| 홍명숙 | 홍미자 | 홍민선 | 홍민희 | 홍성란 | 홍세아 | 홍승희 | 홍은숙 |
| | | | | | 홍익기 | 황경희 | 황달수 |
| | | | | | 황인복 | 황정숙 | |